

## 성도는 하나님의 대사로, 군사다

성경말씀: 눅10:1-24

지난주 성도의 사람 구원과 성화, 구원 무비용, 성화(제자) 비용: 성도들의 보상

제자의 길에는 비용이 든다: 시간, 재능, 재정, 심지어 가족, 비용을 계산한 뒤 따라야 함(눅14:28).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손에 쟁기를 든 채 앞으로 나가는 자가 제자이다.

오늘은 이런 제자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신분으로 무슨 일을 하는지 살펴보려고 한다.

### 유대 사역 시작

공생애 3년, 갈릴리 사역을 마치고 이제 약 반 년 동안 유대와 다른 지역 사역(9:51)

이를 위해 70명의 제자들을 보내심(1): 각 도시와 장소로 둘씩

눅9:1-6에는 열두 제자를 보내셔서 비슷한 일을 하게 함. 주로 갈릴리 지방

이들은 주인으로부터 파송받아 주인의 말을 전하는 자들이다: 친히 가시고자 하는 데로 보냄(1)

즉 이들은 사도이다. 지금 식으로 말하면 예수님의 대사이다.

한 나라의 대사는 나라와 통치자를 대신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자기 말이 아니라 통치자의 말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의 왕국 선포(9), 왕국의 통치자, 대사들이 필요하다. 우리를 부르신다.

이들이 해야 할 일(2): 먼저 수확 밭의 주님께 기도해서 일꾼들을 보내달라고 해야 함

여기의 일꾼은 영어로 보면 labourer, 단순한 일꾼이 아니라 땀 흘려 노동하는 일꾼

킹제임스 성경의 확산, 지역 교회의 필요, 우리 역시 하나님께 동일한 기도를 드려야 한다.

건축 이야기를 왜 하는가? 지역을 섬길 일꾼들이 없다 보니 여기로 몰림. 피해야 한다.

예수님의 심정(3): 어린양을 이리들 가운데로 보내는 심정

이 일이 만만치 않다. 우리의 상대 마귀는 울부짖는 사자(벧전5:8-9), 특히 사역자들 붕괴

그래서 우리 교회는 지역 교회를 시작하려는 사역자들을 돕는다. 도와야 마땅하다.

하나님의 대사들의 필요는 하나님께서 채워 주신다(4).

이런 구절 오해하면 안 된다: 아무 준비 없이 사역에 임하면 안 된다(4).

사역자의 필요는 하나님이 채워주신다는 말이다(마6:33).

대사로서 사역자가 되려면 성정에 능통, 언변에 능통, 화평한 가정생활 등, 선교사는 언어 공부

하나님의 대사로 말씀을 전하면 양들이 목사의 재정적인 필요를 채워야 한다(7-8).

그럼에도 사도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복음을 막지 않기 위해 자비량으로 해도 된다(고전9:14-17).

대사들이 전해야 할 말씀(5): 화평의 복음

모든 사람이 죄 가운데 수태되어 죄인으로 태어난다. 성경적으로 하나님과 원수관계

그러므로 하나님의 대사들은 하나님과의 화평 관계 회복을 선포해야 한다.

이 화평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로만 가능하다(롬5:1).

성육신,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 이것 외에 다른 방법이나 길은 우주 공간에 없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왕국의 시민들이 되라고 선포해야 한다(9, 11).

11절을 잘못 이해하면 안 된다.

이상한 이이러니(13-16): 하나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고 기적과 이적을 체험한 도시들이 불신

고라신, 벧새다, 가버나움, 갈릴리 바다 북부 도시들, 예수님 사역의 증시지

특히 가버나움은 갈릴리 사역의 본부, 이 지역 사람들은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모든 기적을

눈으로 봄(죽은 자, 나병 환자, 마귀, 각종 질병, 갈릴리 호수의 폭풍)

그런데 이상하게 여기 사람들의 대다수가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다.

심지어 소돔이 이들보다 나을 것이라는 저주(12): 그 큰 도시에서 4명이 구원받음

이 시대에도 표적을 쫓는 자들이 많다: 만사형통, 돈 버는 것, 기적(금어빨), 뒤로 자빠지는 것

이런 것들은 모두 불신의 행위이다(마12:39).

성경 말씀을 믿지 않으면 지옥에서 살아온 사람이 와서 이야기해도 믿지 않는다(눅16:31).

하나님의 대사들이 주인의 말을 전한 뒤 보고(17)

이 특별한 시기에 이들은 마귀들을 제압하는 권능을 받았다. 예수님의 대사로 마귀들을 제압하였다. 놀라운 일이다. 흥분되는 일이다(19). 그런데 이것을 지금 추구하면 안 된다.

예수님의 말씀(18): 지금의 이 전쟁은 단순히 줄게 마귀들 제압하는 것이 핵심이 아니다.

지금 이 세상은 하나님의 왕국과 사탄의 왕국 간의 전쟁 상태

사탄 마귀는 사람에게 죄를 가져온 장본인, 사람을 속이고 죄로 이끈 자

이미 멸망이 선포된 자(창3:15), 그리고 궁극적으로 패배할 자, 영원히 불 호수에 들어갈 자(계12:9; 20:10), 사탄의 운명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끝장이 났다(18).

다만 온 세상의 이방인들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통해 구원받도록 교회 시대를 여심

이제 곧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끝이 올 것이다. 마귀에게 속한 모든 것: 거짓 종교(천주교, 이슬람 등), 불신자, 모든 악한 일들, 사망, 슬픔, 고통 다 끝이 난다.

하나님의 대사들에 대한 예수님의 충고(20): 기적들을 보고 기뻐하지 말라.

너희가 구원받아 하나님의 왕국의 자손들이 된 것으로 인해 기뻐하라.

다시 말해 사람의 업적을 생각하지 말라: 성경 번역, 목사, 교회 자랑 No!

내가 아니면 다른 사람을 쓰셔도 하나님이 이를 수 있는 일이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을 받아 하나님의 아들이 된 것을 기뻐해야 한다. 나 자랑, 교회 자랑은 다 버려야 한다.

“목사님이 사람들의 비위를 맞추면 교회가 더 금방 클 텐데요.” 진리를 버리며 하지 않는다.

목회 철학을 버리며 일하지 않는다.

큰 교회, 큰일이 중요하지 않고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대사가 되어 마귀와 전쟁하는 것이 중요하다.

날이 가면서 구원의 복음 전하기가 어렵다. 너무 힘들다.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208쪽

날이 가면서 마귀의 사악한 체제인 이슬람의 세력이 확장되며 일반인들에게도 두려움을 주고 있다.

특히 이 나라에 이슬람이 몰려오고 있다. 막기 위해 <이슬람교 바로 알기> 책, 264쪽

올해 미디어 선교 사역의 핵심은 이 두 책의 전달에 있다. 온 힘을 모아 마귀의 왕국을 부수어야 한다.

이미 전쟁은 시작되었고 게임은 끝이 났다. 그럼에도 현실의 우리는 이 전쟁을 치러야 한다.

나를 위해, 아이들을 위해, 이 민족을 위해

내일은 구정이다: 나라의 앞날을 놓고 기도해야 한다. 북한의 마귀 집단이 무너지도록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을 통해 문서를 전달하고 유튜브 등 미디어 선교하는 것이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원의 대장이다. 목사는 그 대장을 섬기는 대사이다. 여러분은 그 대장을 따라 이 대사의 말을 듣고 전쟁해야 하는 대사요, 군사이다.

기적이니 표적, 업적이 아니라 구원으로 인해 기쁘게 일해야 한다.

건축 이야기를 왜 하는가? 이 싸움을 하기 위해 필요해서 한다. 나 개인에게는 이득이 하나도 없다.

하나님의 대사로써 구원의 대장이신 예수님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 건물이 필요하면 지으려고 한다.

바른 성경이 필요해서 번역하였다. 교회가 필요해서 개척하였다. 건물이 필요해서 여기로 왔다. 이제는 건축이 필요해서 하려고 한다. 단 힘이 없으면 못 하므로 비용을 계산하려 할 뿐이다.

이 싸움은 하나님에게 기쁨이 된다(21-22). 누가 기쁨이 되는가? 지혜롭다고 자랑하는 자들이 아니라 어린아이처럼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만 신뢰하는 자들, 하나님은 이런 자들을 기뻐하신다.

이런 자들은 아들을 통해 아버지가 누구신지 아는 자들이다(22).

요17:3, 우리는 영생을 받았는가? 받고 있으면 안 된다. 받으리라고 소망하면 안 된다.

지금 이 시간 유일하신 아버지와 아들을 알아야 한다. 그 아들을 마음속에 영접해야 한다.

하나님의 대사들/군사들이 전쟁을 수행할 때에 일어나는 일들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것이다(23-24).

이 교회는 작은 교회이다. 이제 아이들 포함 600명 모인다.

그러나 이 힘으로 한국을 뒤집어놓아야 한다(행17:6).

사람을 죽이는 무력이 아니라 사람을 살리는 예수님의 복음으로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사람이다. 외부 사람들이 우리에게 대해 이렇게 증언해야 한다.

사람의 생각으로 이를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일이 아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우리가 되기 원한다.